제8강 흰 그늘의 미학을 찾아서 2

(1교시)

"'그늘이 우주를 바꾼다'는 새 시대의 생명학, 우주생명학을 찾아가는 길이며 그 길 자체가 곧 '흰 그늘'인 새 삶의 원형을 제시한 성배(聖杯)의 민족노선이다."

이 성배는 문명의 대전환기에 성배의 민족이 극동에 있다고 말한 루돌프 슈타이너의 이야기다. 슈타이너 학회에서 공부한 일본 인지학회 회장 다카하시 이와오는 극동에 있는 그 민족이 일본민족인 줄 알고 돌아와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결론은 일본민족은 피가 흥건하게 묻어있고 한민족이 맞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새 삶의 계시가 동학이라고 하였다.

"'흰 그늘' 또는 '흰 어둠(白闇)'의 새로운 인류문명의 길, 카오스모스 문화, 역동적 균형에 가까운 새 문명의 길인 것이다. 앞으로 100년간 폭염(暴炎)이 지구를 지배하리라 한다. 어찌할 것인가? 이 길 뿐이다. 이 길은 '삼태극의 춤'이니 곧 옛 김범부 선생의 그 '동방 르네상스'의 길이요 신인간에 의한 호혜세계창조의 길인 것이다. 흰 그늘이 붉은 악마의 눈빛에 서글서글한 아리따움으로 드리울 날, 그 우주가 바뀌는 날, 우리는 바로 그 날을 기다린다. 중력권 내부로부터 흰 빛 초월의 아우라가 솟아나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의 대개벽, 대자유의 날! 젊은 다중적민중(多衆的民衆) 10대, 20대, 30대의 카오스민중과 전 민족, 전 동아시아와 아시아, 전 태평양주변의 민족들, 아메리카와 유럽과 모슬렘, 러시아, 아프리카, 남미, 호주 등을 모두 다 끌어안은 '카오스민중'들 속에서 '흰 그늘'이 떠올라 드디어 '그늘이 우주를 바꾸는 그 날'이 오기를 인격, 비인격, 생명, 무생명 모두를 아우르는 우리, 그 우리가 기다린다. '생명과 평화의 길'은 바로 스스로 노력하면서 동시에 그것의 신령한 차원의 우주적 실현에 대한 바로 이 기다림인 것이다."

결국 흰 그늘은 혼돈적 질서, 역동적 균형, 기우뚱한 균형, 비균형적 균형, 균형이 아닌데 균형을 잡는 것이다. 이것은 공자의 이야기로 '시중時中', 때에 따라 이쪽저쪽으로 중심이 이동하는 것이다. 중심이 이동하는 것이 삶이요 생명이다. 언제나 평등한 균형은 없다. 그건 논리적 균형이고, 인간의 머리 속에 있는 균형이고 책 속에 있는 균형이고 요구된 균형이지, 살아있는 균형이 아니다. 살아있는 것은 언제나 어딘가 기우뚱하다. 이렇게 형용모순인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흰 그늘인데, 이 흰 그늘과 붉은 악마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월드컵 때 한 달 내내 전국의 거리와 운동장을 가득 메운 '붉은 악마' 그 칠백만의 물결이 거듭 내세워 외쳐댄 세 가지 명제가 무엇이던가? 3분박 플러스 2분박의 혼돈의 질서(카오스모스)인 '대~한민국'과 '따따따 따따'의 이른바 '엇박'이 아닌가!"

붉은 악마는 스승이 없다. 컴퓨터가 가르쳤는데, 컴퓨터는 뇌의 모방이다. 뇌의 운동은 2진법으로 진행된다. 생명도 마찬가지다. 아니다-그렇다, 그렇다-아니다, 이 불연기연을 동양사상 처음으로 진화론으로 내놓은 게 동학의 최수운 선생이다. 이렇게 서로 모순되는 것이 같

www.artnstudy.com

이 어우러져서 상호 교호결합의 혼돈의 질서를 부르는 게 3분박 플러스 2분박이다. 3분박과 2분박은 완전히 반대다. 그런데 같이 있다. 그게 '대~한민국'이고 '따따따 따따'다.

과거의 유목문화를 청산하고 농경문화에 문명의 기초를 두고자 했던 4천여 년 전에 중국의 황제(黃帝)와 74회의 피투성이 전쟁을 치러낸 고조선 직전의 배달국 14대 천왕인 치우(蚩尤)의 시뻘건 문양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현실에 유럽·아메리카 등의 세계화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지배적인 문명론은 전부다 유목이동문화 일변도다. 미래의 21세기 사회는 유목문명이다. 유비쿼터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마음이 가는 데마다 있다는 게, 노트북, 핸드폰, 자동차, 공항, 활주로, 비행기, 모텔, 호텔, 이게 전부 유목민의 문명이다. 소위 세계의 지배자들의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변한다는 이야기다. 이것들이 치우천왕 로고의 한 부분이다.
남방계 해양의 농경정착문화가 있다. 오늘날 같으면 제3세계의 반세계화주의자들이나 민족주의 또는 지역·지역자치주의·생태주의·환경운동연합, 또 농업주의자들, 유기농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문명론은 농경정착문화다.
유목이동문화와 농경정착문화를, 서로 반대되는 것을 융합하려고 했던 자가 바로 고조선 배달국의 치우다. 74회에 걸친 중국 황제와의 전쟁은 문명전쟁이다. 그 당시에 중국의 화하족(華夏族) 쪽에 농업주의가 상당히 혁명적이어서 남쪽에서부터 올라온 농업으로 유목을 전부 숙청해버리려고 했다.
그런데 치우의 고조선 쪽은 이 유목과 농업을 결합시키려 했다. 이 결합을 기초로 해서, 수렵, 해양, 채취를 전부 결합한다. 그래서 부족연맹국가라고 한다. 웅녀는 남방 해양 농경계, 환웅은 북방의 유목계다. 이 둘의 결합이란 정략결혼이라는 뜻이 아니고 부족과 부족의 연맹·동맹을 기초로 한 여러 가지 산업에 종사하는 여러 부족들의 연맹체를 이루는 것이고 그게 고조선이다. 그것을 가장 강력하게, 그리고 아주 과시적으로, 웅변적으로 실현했던 700년이 고구려다. 고구려의 세계관, 문명관, 가치관은 중국하고 다르다.
이 두 개의 반대되는 것을 결합해야만 하는 것이 미래 인류의 문명이다. 유비쿼터스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오히려 후반부에 대한 예상은 아날로그로 다시 흡수하는 것이다. 디지털 일변도는 아니다. 현재 디지털의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날로그의 도구들을 다시 끌어들일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도시중심의 디지털과 농촌중심의 에코가 우리의 신령한 육체 속에서 이중적으로 교호결합"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것을 붉은 악마와 미래 세계의 인류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예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가? 붉은 악마가 자신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기 시작할 때, 이 나라는 성배의 민족이 될 런지도 모른다. 미래 일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어떤 원형.

"붉은 악마가 계속 밀고나온 상징이 무엇인가? 태극기 아닌가? 태극기가 무엇인가? 한민족의 태극기는 중국의 태극형상과 '같지만 다르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 중국의 태극도설이 나온 것은 송(宋)나라 때 주렴계(周濂溪)에 의해서이고 한국에서 태극 또는 삼태극은 북방 샤머니즘의 오랜 고대 문화, 바로 신석기시대의 홍산(紅山)문화에서이며 아주 가까운 물증으로라면 송대보다 수 세기 앞선 신라 때의 감포 감은사 두 탑 사이의 두 댓돌위에 새겨져 있다. 중국의 태극형상은 흑과 백에 나누어져 좌우로 서있다. 그리고 흑점·백점이 있다. 그리고 첫째 건괘(乾卦)와 둘째 곤괘(坤卦)에서 63번 수화기제(水火旣濟)와 64번 화수미제

www.artnstudy.com

(火水未濟)까지의 역경 전 괘상을 모두 압축한 네 개의 괘상(卦象)이 동서남북 정방(正方)에 배치되어있다.”

수화기제는 이미 물과 불에 우주가 완성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 괘인 화수미제는 오히려 무한히 열어버린다. 역경(易經) 전체를 모두 압축한 네 개의 괘상이 동서남북 정방향에 놓여있다.

“여기에 비해 한국의 태극기의 태극형상은 붉음과 푸름으로 점은 없고 위 아래로 나뉘어 누워있다. 그리고 역경 전체를 압축하는 네 개의 괘상은 동서남북의 간방(間方)에 배치되어 있다.”

“중국 태극과 한국 태극은 여러 가지 읽는 방식을 달리할 때 같은 뜻임에도 엄청난 차이를 드러낸다.”

이것도 모순어법이다. 이게 우리나라 철학이다. 동학의 불연기연·기연불연. 이게 동학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사연비연지간(似然非然之間)이라는 말이 있다. 그럴 듯하지만 그렇지 않은, 그 속에 진리가 있다는 말이다. 이것이 19세기 동학에 와서 불연기연이 되었다.
베이츤, 베르그송, 떼이야르, 들뢰즈, 최근에는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미셸 셰르 등 전부 그렇다·아니다, 아니다·그렇다를 말한다. 다니엘 벨(Daniel Bell)이 말했다. “컴퓨터에는 변증법이 없다.” 컴퓨터에는 3이라는 종합, 신테제(Synthese), 합명제가 없다는 말이다. 테제와 반테제, 명제와 반명제만 있다는 말이다.
3이라는 것은 있는데 없다. 예컨대 혁명이나 큰 왕조나 문명의 변화, 기술의 변혁 같은 형상이 있겠는데, 이것과 저것, 저것과 이것, 명제와 반명제, 반명제와 명제 밑에 있으면서 이 사이의 관계를 조정하고 만들고 변화시켜 수정하던 숨은 차원이 이 드러난 차원의 해체기에 다가오면 개시되는 것이다. 지금은 인류사 전체의 큰 변혁이다.

“바로 이 같음과 다름을 큰 틀에서 함께 지니고 있는 것이 곧 한민족 고대의 ‘삼태극’이다. 이것이 어쩌면 오늘 중국의 동북공정이나 역사왜곡의 근거인 동일한 사료(史料)에 대한 해석학의 큰 차이요 역사전쟁의 전략인 사관(史觀)의 차이가 될 것이다.”

바로 이 같은 뜻을 모두 담은 활동이 ‘그늘이 우주를 바꾼다’이고, 그 상징이 ‘흰 그늘’이다. 붉은 악마는 이미 자신의 세 가지 명제를 내걸었다. 엇박, 치우, 태극기. 우리나라 태극기가 중국 태극은 같으면서 다르다는 말이다.

우리 미학을 서양과 똑같이 어휘론적인(symantic) 구조로 가려고 했다가는 백전백패다. 서양처럼 논리적으로, 로고스 중심으로 따져가고 진행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카오스적으로 카오스 나름의 질서를 찾아서 혼돈의 질서를 찾아서 붉은 악마처럼 그렇게 가야 된다.
엇이 지기至氣, 지극한 기운이다. 지극한 기운은 기운을 넘어선다. 이(理)네, 기(氣)네 하던 성리학 논쟁에 있어서 이 중심과 기 중심이 이 지기 안에 다 들어가 있다. 붉은 악마가 엇을 들고 나왔다. 삼분박 플러스 이분박. 혼돈의 질서.

www.artnstudy.com

농경정착과 유목이동이 통합되어야 하는데, 지금도 잡 노마드(job nomad)라고 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닌다. 유목이라는 것은 어차피 필요하지만, 그러나 너무 많다. 쌀, 배추는 누가 생산할 것이며 유기농으로 건강한 채소는 누가 생산할 것이며 또 오염된 생태계는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즉 생명사상, 에콜로지가 소위 유비쿼터스와 결합되지 않는다면 인류 문명의 미래는 없다.
루이스 멈포드(Lewis Mumford)의 역동적 균형을 이야기 했다. 분배와 생산, 유목적인 역동과 농경적인 정착, 균형이 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붉은 악마가 예언자 노릇을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에코와 디지털이 결합해야 되는데, 이때 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발견하기 시작하고 또 시작한다. 메를로-퐁티(M. Merleau-Ponty) 이후 완전히 지배적인 담론이 되어버렸지만, 신체에 대한 중요성은 이미 천부경에 인중천지인부터 나온다. 인중은 사람 마음이다. 마음은 몸에 있다. 몸 속에 '모셔져' 있다. 생명의 핵은 영성이다. 그러나 영성이 있는 생명이 그야말로 신체이다.
배꼽 아래 하단전에 소뇌가 있다는 것이 20년 전 일본 분자생물학계의 발표다. 소뇌가 있다면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뇌기능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뜸을 뜨면 소장이 엄청난 운동을 한다. 뜸을 통해서 화기가 경락계로 전달하면서 집중한다. 거기가 바로 소뇌고, 소뇌가 소장, 대장 전체를 움직인다.

(2교시)

이렇게 해서 영적인 신체학, 아우라와 리비도가 통합되는 생명학으로서의 미학, 생명학으로서의 예술적 사고, 예술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하면 이것이 '흰 그늘의 미학'의 테마다. 이것의 목표지점은 환(環)이다. 동양의 우주관은 종시(終始)의 우주관이다. 천부경은 끝나되 끝이 없는 하나요, 시작하되 시작이 없는 하나라고 한다. 천부경의 핵심은 "삼사성환오칠일묘연(三四成環五七一妙衍)"다. 셋과 넷. 넷은 둘하고도 같다. 이것들이 고리를 이룬다.
고리는 끝나는 데로 다시 돌아간다. 한민족의 시간관이 원래 나한테 시작해서 나로 돌아오고 현재에서 시작해 과거와 미래로 가면서 과거와 미래를 다 끌고 오늘로 돌아온다. 자기에서 시작된 모든 상상과 문화, 창조가 자기들 일에 봉사하고 돌아오는 것이 질서다. 한민족의 시간관은 그래서 이스라엘과 같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 있고 끝이 있는 시간이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처럼 기승전결과 같은 그런 시간도 아니다.
한국의 시간으로 돌아가자. 공적 예술도 그렇지만, 소위 대중예술인 한류라는 것도 그렇다. 탈춤의 판에는 극적 진행이 없다. 반드시 끝나는 점으로 되돌아온다. 이게 열두 마당이다. 이러한 우리의 시간관이 새로운 문명관이고 이것이 역사다. 이것이 바로 엔트로피의 비밀을 가르쳐 줄 것이다. 엔트로피 이론에서는 반드시 질서 뒤에는 반드시 붕괴되어가는 시간, 붕괴되어가는 심리, 붕괴되어가는 모든 형태가 있음이다. 존재다. 스티븐 호킹까지도 실존적 시간이나 심리적 시간까지 반드시 질서에서 무질서로 엔트로피가 점점 많아지다가 고(高) 엔트로피 단계에서 분해되어버리는, 해체되는 시간을 이야기한다.
혼돈의 질서, 엇, 환, 고리. 여기에 대해서 적합성을 가진 철학과 사상들만이 새로운 가지를 치면서 흥성하리라고 본다. 있음의 철학, 존재의 철학, 생존의 철학, 이 있음 위에 붙여진

www.artnstudy.com

통치철학의 봉인, 억압을 털어내야 한다. 바로 한국 사상과 비주류 유럽사상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생명철학, 생명예술이 그 봉인을 풀어야 한다. 중국과 유럽의 주류 철학을 단에서 끌어내려야 한다.

※ 앞으로 계속 탐구해야 할 목록

틈. 거리. 이것과 저것 사이의 거리. 자기 마음의 거리. 또는 속도를 늘이는 틈.
활동하는 무(無). 무는 무인데, 창조 활동하는 무. 허. 공.
기우뚱한 균형. 균형은 균형인데, 어느 한쪽이 기울어져 있는 균형.
풀이. 풀이와 시김새의 관계.
묵(默). 내내 떠들다 딱 끊어버리는 것.
한(恨)과 흥(興).
멋.
엇.
걸이. 완자걸이, 임아걸이.
추(醜).
공소(空所)의 미.
정요(靜寥).
기운생동(氣運生動).
'무자미지특심(無滋味之特心)'.

Q: '틈'에 대해서 좀더 말씀해주시죠.

밀란 쿤데라의 <느림>이라는 소설은 소위 세계 속도를 말한다. 세계 시장 속도는 빠를수록 좋은 것이다. 이런 속에서 소위 문명의 생산, 소비, 여가의 소위 속도 위주, 빠른 것 위주에 대한 반대를 거는 것은 느림이다. 그런데 느림으로 대체하는 것은 유럽의 이야기이고, 나는 빠른 것 안에 틈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아까 이야기한 묵(默), 악기를 켜다 멈추는 것. 그게 틈이다. 그리고 시의 경우에는 어휘와 어휘 사이, 행과 행 사이, 연과 연 사이, 이미지와 이미지 사이에 틈을 두는 것이다. 다 연결된다. 공소(空所)의 미라고도 했다. 빈 데가 있어야 감동이 있다, 그 느낌이 강화된다. 이런 것과 비슷하다. 틈은 동아시아 사람이 아니면 잘 이해를 못한다.

Q: '한'은 일제 식민지배에 의해 만들어진 나쁜 말은 아닌가요? 어떤 것이 맞는 말인지,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한이 무엇인지요.

나는 일종의 변혁의 에네르기로서 한에 대해서 시도 쓰고 산문도 쓰고 했다. 그러니까 한이라는 것은 억압당하거나 소외되거나 착취당하거나 아니면 사람대접을 못 받고 멸시당하거나 억울했을 때 발생한다. 침전된 찌꺼기다. 이것이 한바탕 차원을 변화하면서 일종의 저항이

www.artnstudy.com

라든가 변혁의 에네르기로 변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소위 민중의 적에 대한 풍자적 공격의 열기로, 에네르기로 변할 수 있지 않겠는가. 또는 반대로 이 슬픔이 새로운 저항적 서정시를 밀고 나가게 하는 이매지네이션이 아닌가, 보았다.
원래 한은 아주 종류가 많다. 연애에 실패했을 때 한은 정한(情恨), 어떤 놈한테 얻어터지고 내내 가슴을 쥐어짜고 있는 것은 원한(怨恨), 나라를 잃은 백성들의 슬픔은 망국한(亡國恨)이다. 또 백성으로, 소위 인민대중으로 태어나서 배고프고 괄시당하고 먹고살기도 힘들고 맨날 얻어터지고 쫓겨 다니는 사람들의 한은 중생한(衆生恨)이다.
북한의 미학에서는 흥을 아주 중요시한다. 그러나 한이 깔려 있지 않은 흥은 들떠버린다. 피상적이고 표피적이다. 한을 삶의 일종의 중력이라고 할까. 삶이 일정한 정도의 장애에 부딪혔을 때, 밑으로 무의식 속으로 침전하면서 생긴 복합적인 정서가 바로 한이다.
이 한은 다른 여러 가지 미학적 원리가 나온다 하더라도 존중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삶의 고통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은 어쩔 수 없다. 그 중력을 그대로 안고 있으면서 또 초월할 수 있는, 초월성과 중력, 리얼리즘이 결합하려면 한이라는 무거운 추가 있어야 한다. 한을 좀 아는 사람은 경박하게 까불지 않는다. 바로 그늘하고 비슷하다.

*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www.artnstudy.com